
임플란트 보철 – 성공과 실패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보철학 교실 우이형

학력 :

1979년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1988년 경희대학교 대학원

1973년 독일 뮤빙겐 대학교 방문 교수

현재 : 경희대학교 치과대학 부교수 및 보철과장

현재 임플란트 보철 치료는 모든 치과의사들의 관심 분야이면서 점차 일반적인 치료 방법의 하나로서 자리를 잡아가지고 있다. 특히, 가철성 보철에 대한 거부감을 가진 환자나 유지가 불량한 가철성 보철물의 유지력 증진뿐만 아니라 악안면 보철 영역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시술되고 있다. 따라서 현재 임플란트 보철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은 충분한 저작 기능의 회복도 중요하지만 이제는 이에 만족하지 않고 보다 심미적인 보철들을 위한 노력이 이어지고 있다. 따라서 과거의 보철설계는 주로 저작력 회복에 그쳤기 때문에 심미적인 문제가 있는 경우도 있었고 진단 단계에서부터의 잘못으로 인한 실패도 있었다.

특히 임플란트 보철을 1990년대를 전후로 크게 대별할 수 있으며 그 이전에는 주로 성공적인 Osseointegration에 대한 관심이 주를 이루었기 때문에 기능적이며 심미적인 보철 보다는 기능적인 일면이 강조되었지만 90년대 이후에는 심미성이 환자들의 큰 요구 사항의 하나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어느 경우에도 충분한 검사와 적절한 치료 계획이 없이는 실패할 수밖에 없고 임플란트가 실패된 경우에는 주변 골조직의 광범위한 손실로 인한 더 어려운 상황이 발생되고 때문에 모든 치료에서도 마찬가지이지만 성공을 위한 요소와 실패 요소에 대한 분석과 실패가 발생하 경우에 이에 대한 대처 등을 잘 알고 있어야 하겠다.

본 강연에서는 이러한 임프란트 보철 전반에 대한 사항을 다시 한번 검토하고 성공적인 임플란트 보철을 위한 사항 등을 아래 사항은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적절한 진단 및 치료 계획
2. 몇 개의 임플란트가 필요한가 ?
3. 생역학적인 고려 사항

-
4. single tooth impalntation
 5. 자연 치아와 임플란트 보철과의 연결 관계
 6. 임플란트 보철의 고정 방법...cement 또는 Screw-retained
 7. 교합 재료 및 교합 방법
 8. 임플란트 부품의 파절이나 나사 플림과 그 대책